

# 경계없던 자유인을 기억하다

## 비디오아티스트 故 백남준 10주기 행사 '풍성'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백남준(1932~2006)은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는 <머리를 위한 선> <걸음을 위한 선> <필름을 위한 선> <TV부처> 등 불교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그의 유분(遺粉)은 현재 봉은사에 안치돼 있으며, 봉은사도 매년 1월이 되면 백남준의 추모제를 연다.

진속의 경계를 과격으로서 넘나들었던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그리기 위한 추모 행사들이 그의 10주기를 맞아 잇달아 열린다.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는 진훈관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를 행하는 백남준의 모습.

**온라인 라이브로 추모식을**  
 용인 백남준아트센터는 오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10주기 추모행사 '유도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을 연다. 다소 생경한 행사명은 백남준의 작품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다.

고인의 기일인 1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백남준아트센터, 고인의 유분(遺粉)이 안치된 서울 봉은사, 추모 퍼포먼스를 벌일 박승원 작가의 고양 스튜디오를 연결해 추모식을 진행한다. 행사는 유튜브 채널(<https://youtu.be/Z64ZEQvqeNc>)로 볼 수 있다.

사진제공=갤러리 현대

### 세미나와 추모 전시 열려

갤러리 현대는 백남준 10주기를 맞아 생전에 고인이 한국에서 활동했던 모습과 주요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 '백남준, 서울에서'를 1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에 남은 주요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990년 여름 백남준이 평생의 친구였던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며 갤러리 현대 뒷마당에서 행한 진훈관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와 관련된 오브제, 기록이 26년 만에 공개된다.

갤러리 현대 측은 "1988년 9월 14일, 백남준의 한국 최초 개인전을 개최한 갤러리현대에는 이후에도 고인의 위대한 예술세계와 정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하여 고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백남준문화재단은 1월 27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백남준 테크니스트 3인'에게 듣는다. 백남준 비디오 조각 보존과 뉴미디어 아트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정성, 미국 출신 마크 파스팔, 폴 개린 등 백남준과 함께한 3명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02)2287-3500

이와 함께 아트센터는 오는 3월 3일 10주기 특별전 '다중시간'을 개막하고 10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간송문화재단과 공동 기획전을 마련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탁본 진수·고려 불교 문화 만나볼까

## 새해 기쁨만한 상설전 2곳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금석문 탁본·광흥사 월인석보  
 2가지 테마전 8월 14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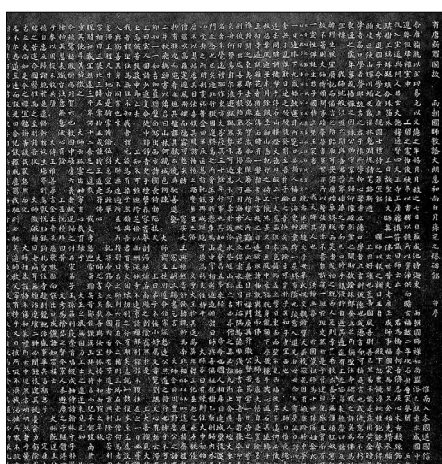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발해실·고려실 新단장 공개  
 철조 아미타불 등 700점 선봬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 2실, 새롭게 단장하고 관람객을 맞는다.



고려 1실에 전시되는 철조 아미타불상.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보령 성주사지 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 탁본.



광흥사에서 복장물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보존 처리를 끝내고 대중에게 첫 공개된다.

주요 국립, 불교박물관이 신년을 맞아 전시실을 정비하고 상설전에 들어간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과의 공동사업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을 열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발해실과 고려실을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은 2016년 상설전을 '2016 금석문 탁본전-경상북도Ⅱ'와 '안동 광흥사와 월인석보' 두 가지 테마로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금석문 탁본전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금석문 탁본조사사업' 과정에서 채취한 탁본들이다. 전시된 탁본은 지난해 경상북도 중요 금석문 60점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13점을 선별, 전통방식으로 표구한 것이다.

또한 이들 탁본은 국내 최고 금석문 탁본 전문가인 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한국 금석문의 높은 예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보 8호 '보령 성주사지 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郎憲和尚白月峯塔碑)'의 탁본이다. 890년 무렵 제작된 남해화상탑비는 높이가 486cm에 달하며 최치원이 비문을 지은 통일신라 시대

최대의 금석문이다. 흥선 스님은 이 탁본을 직접 탁본해 풍화된 하단부를 제외하면 5120여 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채탁했다.

두 번째 전시실에서 '안동 광흥사와 월인석보'는 지난 2013년 안동 광흥사 명부전 시랑상 발견된 복장물들이 전시된다. 이 중에는 복장물로 발견된 <월인석보>가 보존 처리를 끝내고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눈길을 끈다.

광흥사에서 발견된 <월인석보>는 총 4권으로 7권, 8권, 21권 등 487장이다. 이 가운데 21권은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이 없어 초간본으로 추정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월인석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6개월 간의 보존처리작업을 통해 원형을 유지토록 조치했다. (02)2011-1960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신년을 맞아 상설전시관인 발해실과 고려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철조 아미타불상을 비롯해 770점이 전시되며, 이중 230점은 처음 공개되는 문화재들이다.

발해실은 남북국시대의 한 축이었던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로 발해 왕조의 정통성, 발해의 수도·왕

권·통치, 해상성국 발해와 주변 세계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고려실은 시기를 기준으로 두 실로 구분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신정권 이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려 2실이다.

고려 2실은 무신정권 이후 몽골과 원의 간섭에 따른 사회적 변화, 불교신앙과 불교미술, 고려 말 새로운 왕조 건국의 여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불교미술품인 수월관음도 2점(보물 926호, 보물 1126호)을 대여해서 오는 1월 31일까지 전시한다. 전시의 마지막에서는 조선 건국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성계 발원 사리구를 직접 만날 수 있다.

고려 1실은 화려했던 고려의 수도 개경 문화와 뚜렷한 지역색을 가졌던 지방 문화를 입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고려시대 다양한 계층의 일상생활을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발해실과 고려실 개편 전시로 일반 관람객들이 항상전 전시 환경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2)2077-9000

신성민 기자

# 필묵으로 그려낸 禪의 향취

## 서예가 南靑 임성순, 부산·김해서 선사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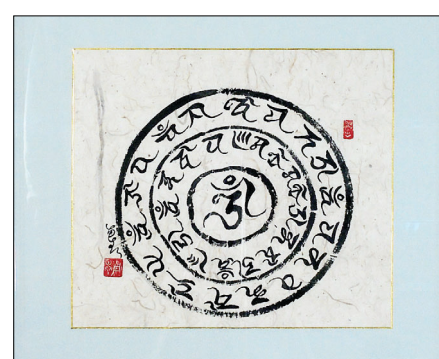
**작가 특유 필체 담은**  
**병풍·서화 123점 전시**

서예를 통해 불교의 선문화를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진 남靑(南靑) 임성순의 선사화전이 부산과 김해에서 잇달아 열린다.

1차 전시는 1월30일부터 2월 5일까지 부산 코모도 호텔 2층 회랑에서 열리며 2차 전시는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김해 신항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임성순 서예가의 선화를 담은 전시 작품과 40여년 동안 매진해 새롭게 창작한 서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총 123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금강경>, <원각경> 등 경전을 사경한 병풍 19점부터 선화, 임성순 서예가만의 독특한 서체로 써내려 간 구구까지 다양한 작품이 선보여진다.

임성순 서예가는 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서예를 접했고, 부산의 동진 하명규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배웠다. 임성순



임성순 서예가의 작품 '광명전언'

서예가는 2002년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을 입학하고, 선문화를 전공하면서 서예를 통

해 불교의 선문화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에 대해 그는 "많은 스님들을 뵈고 불교에 대해 알수록 서예를 통해 불교의 정신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서예를 '서도(書道)'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면서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라 여기며 작품 활동 또한 수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생 틈틈이 작품을 하면서 모아 두었던 것 가운데 한번은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했다"면서 "동국대 재학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양지 스님(김해 신항사 주지)의 책의 제목을 직접 써서 알렸던 것이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 시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김해 신항사 불사 기금으로 사용된다. 010-3856-9852

신성민 기자

#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 신성불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 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 12cm x 세로 5.7cm x 두께 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동업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회)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개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밤의 깨우침을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내세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 때는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리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뜻을 침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언 1  
 22. 광명전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한계  
 30. 선승어록  
 31. 장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경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한다  
 36. 예불가  
 37. 찬불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동사연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발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선도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